

# ‘신의 아그네스’ 읽기

## 아그네스 수녀는 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였을까?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 정 호

### 1.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에서도 ‘신의 아그네스’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려져 크게 성공한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의 아그네스’라는 이 연극의 제목은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아그누스 데이(Agnus Dei)’를 패러디한 것이다. 그것은 미국 뉴욕 주의 로체스터 시 인근에 있는 브라이튼이라는 도시의 한 수녀원에서 한 수녀가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사건에 기초한 것이다. 36세의 아일랜드계 여인인 모린 수녀는 자신의 아이를 죽인 것이다. 보통의 여자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였다고 해도 야단법석이 날 텐데, 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더구나 이 아이를 자신이 살해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도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녀는 무식한 여성이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받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뉴욕 주가 인정하는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였는데,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교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정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육학 석사 학위를 따야 한다.

모린 수녀는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정신과 의료진이 그녀와 면담을 했을 때도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수녀복은 그녀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는 아주 편리한 복장이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수녀원에 있는 그녀의 방의 쓰레기 통 속에서 질식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방을 수색한 경찰은 정확히 9개월 전에 그녀가 교육 연수차 뉴욕 주를 떠나 다른 주로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로 경찰은 그녀가 그때 사용한 버스를 찾아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언급된 적이 없을뿐더러 그녀가 신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암시 또한 없었다.

재판 도중 모린 수녀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하이먼 마스라는 유태계였다. 재판장이 유태계였으므로 천주교 수녀가 연관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재판은 10일간 진행된 후 1977년 3월에 종결되었다. 마스 재판장은 모린 수녀가 정신 이상이라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살인 사건이 일어

난 수녀원은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교회의 본당과 학교 옆에 있다. 그러나 수녀들이 교사로 재직하던 성녀아그네스여자고등학교는 폐쇄됐다.

이 같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존 필마이어는 ‘신의 아그네스’라는 희곡을 썼다. 이 희곡에 나오는 예비 수녀인 아그네스 수녀는 아이를 낳아 살해하는데, 그녀는 죽은 아이가 처녀 잉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처녀 잉태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의 예수 잉태를 지칭하는 교리로 예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죄의 더럽혀짐이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이다. 아그네스 수녀 또한 성모의 예수 잉태에서처럼 원죄의 더럽혀짐 없이, 다시 말하면 남성과의 성적인 결합 없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그녀의 주장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된다.

이 희곡에는 오직 세 명만이 등장인물로 나온다. 이들은 정신과 의사인 마사 리빙스톤과 수녀원장인 미리엄 루스, 그리고 아그네스 수녀이다. 이 세 인물의 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인 마사는 아주 폭 넓은 감정을 표출한다. 그녀는 포용성을 가진 인물이며 동시에 통념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는 또한 아주 깐깐한 정신과 의사인 반면에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 목말라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는 무대를 떠나지 않고 연기한다. 단지 세 번의 짧은 휴식만을 가질 뿐이다. 반면에 아그네스 수녀와 수녀원장은 플래시백을 통해 과거에 수녀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재연한다.

수녀원장은 냉혹한 현대 사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아그네스 수녀는 아름답지만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이다. 이 같은 그녀 자신이 경험한 가정 폭력은 그녀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 2. ‘신의 아그네스’의 줄거리

극이 시작되면 아름다운 소프라노로 부르는 가톨릭교회의 그레고리안 성가가 들려온다. 그것은 아그네스 수녀가 부르는 노래 소리이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

히 여기소서.)

노래가 끝나면서 조명이 서서히 정신과 의사 마사 리빙스톤을 비춘다. 리빙스톤은 그녀가 어렸을 때 그레타 가르보가 주연한 ‘춘희’를 대여섯 번 본 경험을 말한다. 그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녀가 폐결핵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었지만 영화를 볼 때마다 그녀가 죽는 것을 보고 실망했던 경험을 말한다. 그녀는 그레타 가르보가 폐결핵을 이겨내고 달려오는 기차에 치어 죽지 않고 사형장의 총살 집행 속에서도 살아남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처럼 ‘춘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지금 정신과 의사인 리빙스톤은 아그네스 수녀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법정에 선임된 것이다. 아그네스 수녀의 방 휴지통에서 갓난아기가 목에 탯줄이 감겨 죽은 것이 발견되었고, 아그네스 수녀는 기소되어 재판정에 섰기 때문이다.

곧 이어 리빙스톤은 아그네스 수녀의 수녀원 원장과 면담한다. 원장 수녀는 리빙스톤이 자신을 원장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수녀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수녀 원장이라는 말이 불필요하게 불쾌한 암시를 불러일으키거나 친밀감을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녀 원장은 리빙스톤에게 아그네스 수녀를 데리고 왔다. 리빙스톤은 하루에 두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골초이다. 이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 같은 그녀의 흡연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심적 고민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리빙스톤은 누가 죽은 아기를 발견했는가를 묻는다. 원장은 자신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원장은 자신이 아그네스 수녀의 방에 갔을 때 마가렛 수녀가 같이 갔다고 말한다. 리빙스톤은 아그네스 수녀를 임신시킨 장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원장은 아그네스 수녀는 의사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며 또한 의사가 왕진(往診)한 적도 없다고 말한다. 리빙스톤은 수녀원의 출입이 자유로운 남자로 마셜 신부가 아그네스 수녀를 임신시키지 않았나 의심한다. 그러나 원장은 마셜 신부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아그네스 수녀가 아기를 낳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원장은 말한다. 이렇게 해서 아그네스 수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기의 살해가 대단히 신비의 베일에 가려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이 이 연극의 처음에서부터 드러난다.

원장은 아그네스 수녀가 특별한 인물임을 강조한다. 아그네스 수녀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이러한 천부적인 능력을 원장은 축복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녀가 천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그네스 수녀는 이러한 천사의 목소리로 그레고리안 성가를 항상 부른다. 원장과 의사가 면담을 하는 동안에도 아그네스 수녀는 천사의 목소리로 성가를 아름답게 부르고 있다.

리빙스톤이 아그네스 수녀를 면담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심리적 외상(外傷)을 독백으로 털어 놓는다. 리빙스톤에게는 메리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메리는 열다섯 살 때 수녀원으로

부르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스스로 결정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녀를 수녀원에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빙스톤은 메리가 아무도 보살펴 주는 사람 없이 급성맹장염으로 죽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장 수녀가 그녀를 병원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리빙스톤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리빙스톤은 아그네스 수녀와 드디어 면담을 한다. 수녀가 그녀에게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질문하자, 리빙스톤은 그것은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 후에 수녀가 리빙스톤에게 아이를 갖고 싶은가를 묻자 그녀는 수녀에게 자신은 지금 혼자 살고 있으며 또한 이미 폐경 됐으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리빙스톤은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그네스 수녀는 천사가 아기 어머니의 가슴에 빛을 비추고 귀에 속삭일 때 아기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아그네스 수녀는 자신이 성모님을 본 경험에 대해 말한다. 그녀가 열 살 때 그녀는 풀밭에 누워 태양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태양이 구름으로 변하고 구름이 성모로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양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성모를 본다. 성모는 아그네스 수녀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아그네스 수녀는 성모의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게 된 것이다.

원장과의 면담에서 리빙스톤은 아그네스 수녀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를 듣게 된다. 그녀는 집안에 가둬 지냈으며, 정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자랐다. 그녀는 또한 텔레비전 쇼를 본 적도 없고 영화를 본 적도 없으며 한 권의 책도 읽은 적이 없다고 원장 수녀는 말한다. 그러면서 원장 수녀는 아그네스가 아기를 죽인 것은 정신이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라기보다는 과실치사일 것이라고 말한다.

원장 수녀는 아그네스 수녀가 수녀원에서 단식했던 일에 대해 말한다. 원장 수녀는 아그네스 수녀를 불러 왜 단식을 하느냐고 물었다. 아그네스 수녀는 자신이 너무 살이 찌서 하느님이 보기 싫어 할까 봐 단식을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그네스가 단식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그네스에게 그녀가 날마다 커서 나중에는 터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단식을 하는 것이다. 그때 아그네스 수녀는 손에서 피가 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자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성흔(聖痕)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라졌다.

리빙스톤은 자신의 과거를 독백을 통해 들려 준다. 그녀는 어머니와 신의 존재 때문에 심한 말다툼을 하곤 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하느님은 멍청한 옛날이야기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대단히 화를 낸다. 그러다가 리빙스톤은 모리스라는 대단히 로맨틱한 프랑스 남성과 약혼했다. 어머니는 그를 멸시했고 모녀는 불목하게 된다. 모리스가 그녀 곁을 떠나고 어머니가 죽기 전 리빙스톤은 그녀에게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적이 있

다. 이후 리빙스톤은 신앙을 잃었다.

수녀 원장은 리빙스톤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처녀로서 수녀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23년간 결혼했으며, 딸이 둘이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톨릭의 교회법에는 수녀가 되기 위해서 처녀여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수녀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미혼 상태여야 하는데, 수녀 원장은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미혼 상태였던 것이다.

원장 수녀는 약 1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그네스 수녀의 침대에서 시트가 없어지고 그녀가 침대가 아닌 마룻바닥에서 자는 것이 마가렛 수녀에 의해 발견된다.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시트가 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아그네스 수녀는 월경을 시작한 것이다. 이 때 원장 수녀는 월경을 대단히 자연스런 현상이며 전혀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고 그녀에게 말해 준다. 아그네스는 월경을 그녀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가 월경을 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몸 전체가 실수 투성이라고 말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아기를 갖게 되리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성기를 만지곤 했다. 그래서 아그네스 수녀는 어머니에게 착한 사람이 될 테니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애원하곤 했다.

아그네스가 열일곱 살 때 어머니는 죽었고 그녀는 수녀원에 보내졌다. 리빙스톤이 아그네스 수녀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녀가 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보내지지 않았느냐고 원장 수녀에게 묻는다. 그러자 원장 수녀는 자신이 아그네스 수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말한다. 아그네스 수녀의 어머니는 원장 수녀의 막내 여동생이니, 원장 수녀는 아그네스 수녀의 이모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고 원장 수녀가 수녀원에 들어오자 아그네스 수녀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녀를 도와달라고 원장 수녀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아그네스 수녀의 어머니는 어릴 적에 가출한 사람이다. 그녀는 성적으로도 문란한 생활을 했는데, 아그네스 수녀의 생부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녀의 어머니가 많은 남성과 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그네스 수녀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아그네스 수녀의 어머니는 술을 많이 마신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다.

리빙스톤은 원장 수녀와 아그네스 수녀와의 면담을 통해 아그네스 수녀가 정상인지의 여부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녀에게 최면을 걸기로 마음먹는다. 아그네스는 최면 중에 그녀가 임신했음을 힘겹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리빙스톤에게 들려 주는 것이 무섭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그네스 수녀는 자신이 가치가 없는 인간이어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임신 중에 우유를 많이 마시

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 우유를 많이 마셨다고 말한다.

리빙스톤은 꿈을 꿔다. 그녀는 꿈에 어느 낯선 곳의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서 어느 여인의 출산을 도와 주고 있었다. 그녀가 여인의 배꼽 아래를 쥔 다음 손을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 손을 넣었는데, 팔꿈치, 어깨, 턱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자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는 시트가 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월경이 끝난 지 3년이나 됐는데 다시 월경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리빙스톤은 아그네스 수녀를 자신의 감독 하에 두도록 하는 신청서를 내 허락을 받는다.

수녀 원장은 아그네스 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는 사이 스캔들이 퍼져 나갔지만 그녀는 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아그네스 수녀가 출산을 하는 날, 원장 수녀는 그녀의 방에 있었다. 휴지통은 더러워진 시트를 넣기 위해 거기에 갔다 왔다. 아그네스 수녀가 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원장 수녀는 당황한다. 그러는 사이 아그네스 수녀는 태어난 아이의 탯줄을 갓난애의 몸에 감아 피 묻은 시트에 싸서 쓰레기통에 처박는다. 이렇게 해서 갓난애는 죽게 된다.

그녀가 수태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그녀의 방 너머에 있는 호밀밭 한가운데서 들려왔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는 쪽을 내다봤다. 거기에는 달빛에 비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이 그녀를 위해 여섯 밤을 노래 부른 것이다. 그 노래들은 그녀가 생전 처음 듣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밤에 그는 그녀의 방으로 와서 나래를 펴고 그녀 위에 누웠다. 그러는 동안 그는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

찰리는 멧쟁이 그리고 찰리는 상냥해.  
그리고 찰리는 정말 신사야.  
그는 마을에 올 때마다 딸애에게 캔디를 갖다 주곤 하지.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  
강을 건너 찰리네 집으로,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  
찰리를 위해 과자를 굽지.  
찰리는 멧쟁이 그리고 찰리는 상냥해.  
그리고 찰리는 정말 신사야.  
그는 마을에 올 때마다,  
딸애에게는 캔디를 갖다 주곤 하지.  
오, 딸애에게 캔디를 갖다 주곤 하지.

이같은 아그네스 수녀의 이야기를 듣고 리빙스톤은 수녀가 노래한 것과 같이 “그녀에게 캔디를 갖다 주곤 하지”라며 한 구절을 흥얼거린다. 리빙스톤은 이 노래의 감춰진 진실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와 동침한 사람은 농사꾼이었을지도 모르고 그 노래는 오래 전부터 불러져 내려오던 자장가의 한 곡조였을지도 모른다고 리빙스톤은 말한다. 이 농사꾼은 희망과 사랑, 욕망과 기적에 대한 믿음의 복합체였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 다음날 리빙스톤은 그 사건에서 손을 뗀다. 수녀 원장은 법정에서 아그네스 수녀의 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한다. 그리고 아그네스 수녀는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 곳에서 그녀는 노래를 다시는 부르기 않았다. 먹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끝내 죽었다. 리빙스톤은 아그네스 수녀가 어릴 때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것을 생각하며 왜 그녀가 갓난아기를 죽여야 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리빙스톤은 이제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또한 월경도 정상적으로 한다. 그녀는 하느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고민한다. 이토록 질서 정연한 우주에서 자신이 유린(蹂躪)당하면서 흙탕물 속을 방황하는 아그네스 수녀 같은 경이로운 존재를 세상에 내보내신 하느님은 누구일까를 리빙스톤은 알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아그네스 수녀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싶어한다. 리빙스톤은 이 연극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녀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그 무엇인가를, 그녀 자신의 조그만 한 부분을 남기고 갔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으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sup>1)</sup>

### 3. 이 희곡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희곡은 흔치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문제를 종교 내에서 다룰 경우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를 종교 내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희곡은 신앙의 문제를 종교 밖에서 다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종교가 아닌 사회에서는 기적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적은 종교 안에서 논할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그네스 수녀의 주장대로라면 그녀는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은 것이 되는 것인데, 이는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의해서도 이 같은 기적은 성모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읽기가 가능하다. 하나는 신앙

---

1) Pielmeier, *Agnes of God*, p. 111.

의 입장에서 이 희곡을 읽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이 희곡을 읽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이 희곡을 읽어보기로 하자.

#### 4. ‘대상 소문자 a’로서의 목소리, 그리고 아그네스 수녀가 느끼는 주이상스로서의 초월적인 사랑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이 희곡을 읽을 경우 우리는 아그네스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학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이 희곡은 그녀의 양육 과정에 잠재해 있는 문제들을 밑 텍스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어머니와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상상계를 떠나 아버지의 이름과 법이 지배하는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하나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인간 주체는 통일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주체일 뿐이다. 인간 주체가 상징계에 진입하여 이처럼 통일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분열된 주체가 되는 이유는 그가 상상계에서 어머니를 통해 언어의 매개 없이 사물과 즉자적(即自的) 관계를 유지하던 언어 이전의 상태를 벗어나 사물과의 관계가 언어에 의해서만 매개되는 대자적(對自的)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라캉이 대타자(對他者)라고 부르는 언어가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상징계의 언어는 이 경우 인간 주체를 분열시키면서 이러한 분열된 주체를 드러내는 도구이며 동시에 소통의 수단이다.

언어가 인간 주체의 분열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보기로 하자. 여기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문장을 인간 주체가 사용할 경우 우리는 두 개의 주체를 가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술의 주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하는 주체이다. 언술의 주체란 문법 체계에서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나’이다. 이러한 언술의 주체는 단지 언어라는 문법의 구조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 주체가 말을 할 때 그는 단지 이렇게 자신 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문장을 사용하여 의사를 표시할 뿐이다. 이 경우 인간 주체는 말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인간 주체가 말할 때에는 단지 이 문장을 사용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는 언어라는 하나의 구조를 이용한 것일 뿐 언어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 주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언술의 주체와 말하는 주체는 결코 일치할 수 없다. 이것이 라캉이 말하는 주체의 분열이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상상계의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은 언어 이전의 기간이다. 그 후 그는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상징계의 진입이란 곧 인간 주체가 언어에 의해 정체성의 분열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처럼 언어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진

입할 때 인간 주체는 엄청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상상계가 어머니를 통한 언어 이전의 사물과의 즉자적인 관계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상징계는 인간 주체의 정체성의 분열을 드러내는 언어로 매개되는 대자적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주체는 상징계에서 결코 통일된 정체성을 이룩할 수 없다.

라캉은 인간 주체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할 때 그가 느끼는 정신적 외상은 어머니와의 합일로 인해 가능하던, 즉자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던 어머니와의 일체감과 합일이 일시에 무너지기 때문으로 본다. 인간 주체는 상상계에서는 어머니의 눈길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언어를 통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 주체가 언어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진입하는 순간 이 같은 어머니의 사랑에 넘치는 눈길과 목소리는 영원히 그로부터 사라지고 만다. 라캉은 이처럼 상상계에 상징계로 넘어가는 순간에 상실되는 언어 이전의 요소들을 ‘대상 소문자 a’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는 아그네스 수녀의 삶에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열 살 때 성모를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시(幻視)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모가 그녀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대개의 경우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인 상상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모와 조화롭고 합일적인 삶을 유지한다. 따라서 상징계에 진입할 때 그는 상상계에서의 어머니와의 합일의 상실이 정신적 외상으로 남아 ‘대상 소문자 a’가 된다. 그러나 아그네스 수녀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그녀의 어머니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다. 게다가 그녀는 딸에게 정규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은 인물이다.

이러한 아그네스 수녀의 어린 시절을 볼 때 그녀는 어머니와 좋은 결속을 이루지 못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처지에 있던 아그네스 수녀에게 성모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성모는 어머니로 전치(轉置)된다. 따라서 그녀가 열 살 때 본 성모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사실은 성모의 목소리가 어렸을 때의 아그네스 수녀에게는 ‘대상 소문자 a’인 셈이다. 이 같은 ‘대상 소문자 a’로서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단지 잃어버린 동경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된다. 그녀는 자신의 고운 목소리로 그 레고리안 성가를 부름으로써 성모, 즉 이상적인 어머니와의 합일을 이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성모와의 행복한 합일을 이루며 살던 아그네스 수녀는 그녀가 아무리 폐쇄적이고 외부와는 격리된 삶을 살았더라도 생물학적인 성장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녀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한 동경을 느끼게 된다. 그녀에게 일주일간이나 밀밭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한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인물이 비록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성모의 연상선상에 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부재의 존재여서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재하던 아버지는 밀밭에서 노래 부르는 한 남성으로 전치된 셈이다.

이 남성과의 성적 접촉은 아그네스 수녀에게는 대단한 기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해서 낳은 아기를 땃줄을 감아 죽이게 된다. 그녀가 이렇게 아기를 죽이는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주입시킨 부정적인 교육의 결과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그녀의 성기를 만져 그녀를 학대하면서 그녀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면 나쁜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녀 자신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아그네스 수녀에게 투사하여 경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어릴 때의 아그네스 수녀는 어머니에게 나쁜 아이가 되지 않을 테니 자신의 성기를 만지지 말라고 간청한다. 이런 부정적인 교육을 받은 아그네스 수녀는 성(性)을 추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출산을 자신의 나쁜 행동의 결과로 보게 된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신이 나쁜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짐작하여 아기를 원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그네스 수녀가 성관계를 맺는 남성이 부르는 노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노래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전까지의 다른 모든 노래는 그레고리안 성가였던 데 비하여, 그가 부르고 그녀가 또한 따라 부른 이 노래는 성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리빙스턴은 이 노래가 자장가가 아니었는지 추측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오랜 동안 민간에서 전해 내려 온 노래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 노래에는 또한 성적인 이미지가 들어 있기도 하다. 그것은 “그는 마을에 올 때마다 딸애에게 캔디를 갖다 주곤 하지.”라는 구절이다. 캔디는 분명 남근을 상징하는데 이런 캔디는 찰리만큼이나 달콤하다. 그렇다면 찰리는 단순히 마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성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을에 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그네스 수녀는 이 남성으로부터 이제까지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맛보지 못한 성적 쾌락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쾌락은 수녀에게는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달콤했을 것이다. 이러한 성적 접촉이 금지된 것인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쾌락은 라캉이 말하는 주이상스(*jouissance*)가 되기도 한다. 주이상스는 금지된 것의 쾌락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그네스 수녀가 느끼는 주이상스는 그녀가 신이라고 믿는 남성에게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차원의 주이상스가 된다. 라캉은 여성이 경험하는 주이상스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정의한다. 여성이 경험하는 주이상스가 이처럼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인 이유는 ‘여성은 [주이상스를] 경험하지만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sup>2)</sup> 이렇게

---

2) Lacan, *On Feminine Sexuality*, p. 77.

볼 때 아그네스 수녀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여성적인 주이상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그네스 수녀가 느끼는 주이상스는 종교적인 법열(法悅)이면서 또한 성적인 희열(喜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아그네스 수녀가 아기에 대해 가지는 양가(兩價) 감정

우리는 이제 왜 아그네스 수녀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녀를 임신시킨 장본인은 이 희곡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남성일 것이다. 아그네스 수녀에게 있어 이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인물은 '대상 소문자 a'로서의 초월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는 신의 지위로까지 격상된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녀가 아기를 분만한 사실은 이와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나쁜 행위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나쁜 짓을 하면 아기를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임신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이 그녀에게 안겨 준 축복이 되지만, 아기의 분만은 그녀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아기의 분만은 그녀에게는 이처럼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녀는 아기를 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인용문헌

Lacan, Jacques. *On Feminine Sexuality. The Limits of Love and Knowledge, 1972-1973. Encore: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X.* Tr. Bruce Fink. New York: Norton, 1998.

Pielmeier, John. *Agnes of God.* Garden City, NY: Nelson Doubleday, 1978, 1982.